



# The United Methodist Church

CHICAGO AREA EPISCOPAL OFFICE

77 West Washington Street • Suite 1820 • Chicago, Illinois 60602  
Office: (312) 334-0702

Sally Dyck  
Bishop

E-mail: [bishop.dyck@umcnic.org](mailto:bishop.dyck@umcnic.org)

Rev. Arlene W. Christopherson  
Assistant to the Bishop/Director of Connectional Ministries  
E-mail: [achristo@umcnic.org](mailto:achristo@umcnic.org)

Pastoral Statement Re: NIC Future 목회 서신: 북일리노이 연회의 미래에 대하여

세계적으로 퍼진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하여 계획된 일들이 취소 되거나 연기 되는 등 일상의 생활이 혼란해지고 다방면에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미래를 위한 계획-단 몇 주 앞의 일 도 불확실해서- 매순간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야고보서에서 이 성경구절을 좋아 한적이 없었는데 요즘같은 시기에는 이 말씀이 크게 다가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간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 저것을 하리라 할것이거늘” (야고보서 4: 14-15)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교단총회는 2021년 8월29일 부터 9월7일까지로 연기되었습니다. 총회 후에 이루어지는 지역총회는 2021년 11월8-15주간이며 중북부 지역총회 모임은 11월10 - 12일 입니다.

주정부에서 내려진 지시에 의하면 백신이 개발 되거나 아니면 Covid-19 치료약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50이상 모임 수가 없으므로 **성직자 세션(Clergy Session)을 화상 모임으로 6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성직자세션에서는 연회안수사역부가 추천하는 커미션 받는자, 목회자 안수, 은퇴할 목회자 등을 포함하여 성직자와 관련된 모든 안건에 대하여 투표할 것입니다. 등록 안내에 따라서 성직자 세션에 등록 하시고 줌 (Zoom link) 연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또한 가을에 있을 연회 모임 (Annual Conference Session)을 (계획 중입니다만 아마도 11월 경에) 화상으로 할 예정이며 이 또한 중요한 안건 만을 다루게 됩니다. 즉 다가오는 2021년에 승인이 필요한 안건들입니다. 다른 안건들은 다루지 않습니다. 연회 전에 미리 온라인을 통하여 예산 설명회와 영상을 통하여 연회평신도대표 메시지 와 감독의 메시지가 전달될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영상을 통하여 커미션 받는자, 목회 안수자, 은퇴자, 그리고 추모 등(동영상을 통하여) 축하하고 이다음에 우리가 직접 만나는 날에 다시 축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저는 2020년 9월 1일 부로 은퇴하기로 하였었습니다. 저는 많은 기도 중에 북일리노이 연회 감독협조위원회, 중북부지역 감독협조위원회, 지역 감독회 (중북부지역 감독님들), 케비넷,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하고 상의를 한끝에 **2021년 1월 1일 부로 은퇴하기로 하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계획과 총감독회의 에큐메니칼 사역 감독 역할이 교단 총회가 연기 되는 과정에서도 이미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감독회는 감독들의 지역을 치리할 책임이 있으며, 지역총회에 앞서서 중북부지역 감독협조위원회에서 새로운 감독 파송을 하기 전까지 2021년 한해 동안 북일리노이연회를 위해 어떤 감독을 주재 할지에 대하여 이미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중북부지역 감독협조위원회와 지역 감독회의 대표들이 이미 북일리노이연회 감독협조위원회 하고 만남을 가졌습니다. 여름 후반기에 북일노이 연회의 주재 감독에 대한 계획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영상 미팅을 통하여 우리가 일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일할 때에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떡을 떤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의 임재함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 2달동안 온라인에서 일어난 깊은 경험들을 과소평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인터넷 기술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지 상상이 안됩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찰스 웨슬리가 "생전에 우리가 " 라는 찬송가를 지은지 몇 세기가 지났지만 우리는 이 찬송을 특별히 헤어졌다가 모이는 연례 성직자 회의에서 부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찬송을 조가처럼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모였던 이후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이 찬송이 깊게 와 닿게 됩니다. 이 "신성한 만남의 장"이 연기 되면서 특별히 가사 1절과 3절이 자주 나타납니다.

생전에 우리가 또다시 모였네 ...

구주의 권능을 힘입고 살았네 ...

싸움터 같은 세상에 두려움 없었네 ... 그 은혜 찬송 하려고 이곳에 모였네.

한편으로, 줌 영상으로 서로의 얼굴을 볼 때에 우리가 살아 있고, 예배하고, 선교에 참여 하고, 개체 교회들과 연회가 서로 도움을 주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Be safe! Be smart! 건강하세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Bishop Sally Dyck